

투표 참여를 통해 본 한국 무당파 유권자의 특징

가상준 | 단국대학교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정당 간 양극화 속에서 정치적으로 독립적 성향을 보이는 무당파 유권자들의 정치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 유권자에서 무당파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당 간 이념 양극화 시기에서 당파적 유권자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지만 무당파 유권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정치 양극화가 불러온 반갑지 않은 결과라 하겠다. 무당파 유권자들의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는 당파적 유권자와 차이가 있으며 이들의 투표 참여는 당파적 유권자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들이 특정 정당에 애착감이 없다고 해서 투표 참여가 낮은 것은 아니다. 이들이 가지는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애착과 혐오는 투표 참여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정치 양극화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무당파의 영향력은 더욱 키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무당파 유권자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새롭게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당파가 어느 수준이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했다는 점에서 기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무당파 유권자 관련 연구가 충분히 이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주제어 | 무당파, 정서적 양극화, 투표 참여, 당파적 유권자

1. 서론

정당 간 선거경쟁은 당파적 지지자들의 확고한 충성심 하에 당파성이 없는 무당파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파 유권자들의 선택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받아 나타나는데 무엇보다 인물 및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회고적 혹은 전망적 투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Bishin et al. 2014). 무당파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중요성이 크에도 이들의 투표참여 및 선택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당파성 지지자들에 비해 유동적 유권자와 무당파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이며, 어쩌면 이들이 과연 누구인지 정확히 구분해 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설문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유권자로 구분해 낼 수 있지만 선거를 둘러싼 분위기 그리고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 및 평판 등에 따라 이들은 지지하는 정당을 일시적으로 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무당파를 정확히 구분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무당파에 대한 과거 연구들은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유권자를 당파적 지지자, 편향적 무당파, 그리고 순수 무당파 혹은 무당파와 당파층으로 구분하였고 이들이 어떠한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강원택 2012; 박원호·송정민 2012; 윤종빈 외 2016; 이현출 2001; 장승진 2015; 정진민·길정아 2014; Keith et al. 1992; Lascher and Korey 2011). 그러나 모든 무당파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들을 인지적 차원에서 혹은 정당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강원택 2012; 장승진 2015; 정진민·길정아 2014; Dalton 1984). 또한, 편향적 무당파는 당파적 지지자들과도 다르지만 순수 무당파와도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장승진 2015; Keith et al. 1992; Lascher and Korey 2011).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무당파들의 정치적 특징은 당파적 유권자와 뚜렷하게 다르며, 무당파 유권자도 편향적 무당파와 순수 무당파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아직 무당파 유권자들이 누구이며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연구들은 많지 않다. 물론 인지적 차원으로 접근하여 분석한 연구도 있지만 이들의 정치행태를 통해 이들의 특징을 파악하는 연구들은 미약한 편이다. 최근 정당 간 이념 양극화(partisan ideological polarization)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과 거리를 두고 있는 무당파가 전체 유권자 중 어느 정도이며 이들의 비율은 어느 수준에서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는 연구들은 전무하다. 또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치적 특징은 무엇인지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정당 간 양극화 심화로 유권자들은 정당의 차이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정당 간 차별적 정책과 방향에 대해 과거보다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무당파들의 투표참여는 어떠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특히, 양극화 현상이 일반 유권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 이견이 있다. 즉, 정당 간 양극화가 정당 간 차이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게 만들고 있으며 당파적 유권자뿐만 아니라 무당파 유권자들도 이러한 차이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는 주장(Dodson 2010; Hetherington 2008; Levendusky 2009; Smidt 2017; Wilford 2017)과 정당 간 양극화는 지지자들의 적극적 활동과 투표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초래하여 유권자의 투표참여 의욕을 꺾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Fiorina et al. 2011; Rogowski 2014)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립적 주장이 무당파들에게는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무당파들의 투표참여로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치와 선거에 대한 외면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편, 정당 간 양극화 속에서 당파적 유권자들의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는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정당과 거리를 두고 있는 무당파 유권자들과는 무관한 논의인 것인지 아니면 이들과도 관련된 것인지 파악하는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정당 간 양극화 속에서 정치적으로 독립적 성향을 보이는 무당파 유권자들의 정치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당파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무당파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게 사실이다. 이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그리고 통시적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이들은 누구이며 이들이 보여주는 특징은 무엇인지 파악해 본다. 또한, 정당 간 양극화 속에서 이들은 정당들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특히, 두 거대 정당 및 후보자(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호감도가 이들의 정치행태 구체적으로 투표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이를 위해 먼저 유권자 속 무당파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살펴본다. 시기별, 선거별 어느 정도 편차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본다. 두 번째로 이들이 누구인지 정치·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통해 살펴본다. 연령, 학력, 소득과 함께 이들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를 비교적 차원에서 살펴본다. 세 번째로 무당파의 정치적 특징을 투표 참여를 통해 알아보고 당파적 유권자들과 비교해 본다. 구체적으로 무당파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 정당과 후보자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무당파에 대한 구체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무당파를 투표 참여 무당파와 투표 불참 무당파로 구분해 이들의 차이에 대해 알아본다.

과거 무당파의 특징을 파악하는 혹은 정치행태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하나의 선거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며(김성연 2015; 윤종빈 외 2016; 이현출 2001; 장승진 2015; 정진민·길정아 2014) 투표율 감소 시기에 무당파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소순창·현근 2006; 이현출 2001). 반면 본 연구는 정당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투표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해 알아보며, 하나의 선거를 대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무당파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시적 접근이 필요하며 선거환경과 분위기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무당파는 누구인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들을 순수 무당파(pure independents)와 편향적 무당파(independent leaners)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편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측정 방식에 있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무당파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살펴보려 한다.

무당파 특징에 대한 연구가 중요성을 띠는 것은 선거결과에 이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류재성 2012; 정진민·길정아 2014; Bafumi and Shapiro 2009; Girvan et al. 2010). 무당파의 투표 참여는 당파적 지지자들에 비해 낮지만 예상보다 높은 편으로 이들을 정치적 무관심 유권자로 볼 수는 없다. 무당파에 대한 연구는 정당이라는 중요 매개체가 배제된 상황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띤다. 정당이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져가고 있으며 정당이 이념, 정책과의 연관성을 통해 유권자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Bafumi and Shapiro 2009; Bartels 2000; Luskin et al. 1989). 그러나 유권자에게서 정당이 배제되었을 때 이들의 투표 참여는 무엇에 의존하는지 그리고 이들은 당파적 유권자들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띤다.

II. 무당파 관련 기존 연구

무당파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정당의 쇠퇴와도 관련이 깊다(Dennis 1988; Rosenstone and Hansen 1993; Nie et al 1993; Wattenberg 1991). 정당일체감이 약해지고 정당의 영향력이 쇠퇴함에 따라 무당파의 증가 그리고 무당파는 누구인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Keith et al. 1992). 한국 무당파에 대한 연구도 정당일체감 하락 그리고 투표율 하락과 연관 지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이현출 2001). 한국에서 무당파에 대한 연구는 그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정당일체감에 대한 관심과 함께 무당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매우 경쟁적 선거였던 제18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무당파에 대한 관심이 커진 편이었다. 그러나 이전 그리고 이후에 무당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는 않았다. 이는 이들을 정치적 무관심층 혹은 기권층으로 취급하면서 크게 투표

행태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무당파에 대한 연구에 있어 가장 큰 난관은 이들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방식에 있다(박원호·송정민 2012; 이현출 2001). 미국과 같은 양당제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순수 무당파(pure independents)만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두 정당 외에 소정당들이 역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을 잘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을 고려할 때 무당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무당파 중에는 정당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분석을 어렵게 한다. 무당파에 대한 연구는 무당파에 대한 정의를 짓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혹은 가까운 정당이 없는 유권자를 말한다(이현출 2001; 정진민·길정아 2014). 그러나 선호하는 정당이 없다는 것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Miller and Wattenberg 1983). 이러한 차원에서 정치에 관심 없는 유권자가 전통적 무당파였다면 최근 무당파는 정치에 관심은 있지만 정당 및 정당체계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유권자라 말하기도 한다(정진민·길정아 2014).

한국 무당파 유권자를 구분하는데 있어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현출(2001)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말한 무당파를 과거 선거에서의 투표를 통해 안정적 지지층, 준안정적 지지층, 그리고 순수 무당파층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비해 강원택(2012)은 Dalton(1984)의 인지적 동원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대답한 유권자를 인지적 동원이 된 인지적 무당파와 그렇지 못한 정치 외면층으로 구분하였다. 반면, 박원호·송정민(2012)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말한 응답자 중 그럼에도 약간이라도 가까운 정당이 있는지 재차 물어보았을 때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를 순수 무당파로 구분하였다. 정진민·길정아(2014)의 연구는 강원택(2012)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무당파를 인지적 동원이 이루어진 비당파층과 인지적 동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정치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반면, 윤종빈 외 2명(2016) 설문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으며 또한 선호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유권자를 무당파로 구분하였다.

무당파를 구분하는데 있어 학자 간 차이가 발견되는 것은 다양한 설문조사 방식이 사용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당층의 정치적 행태와 연계시키며 이들을 상이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 무당파는 젊은 유권자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과 정치적 불신, 낮은 정치적 관심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류재성 2013; 박원호·송정민 2012; 윤종빈 외 2016; 이현출 2001). 이와 유사한 발견이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순수 무당파는 정치 지식과 관심이 낮으며 선거참여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Keith et al. 1992; Lascher and Korey 2011). 한편, 무당파에 대한 연구들은 순수 무당파(pure independent)를 편향적 무당파(independent leaners)와는 뚜렷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편향적 무당파들의 정치행태는 당파적 유권자들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Keith et al. 1992; Lascher and Korey 2011). 그러나 장승진(2015)은 편향적 무당파들의 정치태도 및 투표선택을 보았을 때 순수 무당파뿐만 아니라 당파적 유권자들과도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¹⁾ 한편, 무당파 유권자는 당파성을 지닌 유권자뿐만 아니라 편향적 무당파(independent leaners)들 과도 제도에 대한 평가, 정치 지식, 정치에 대한 관심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ascher and Korey 2011). 이러한 점에서 순수 무당파만을 무당파로 구분하여 이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무당파 유권자라고 하더라도 순수 무당파와 편향적 무당파와의 구분 외에도 이들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정치관심, 인지적 동원 등을 중심으로 세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강원택 2012; 정진민·길정아 2014).

순수 무당파 유권자를 따로 구분하더라도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인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물론 무당파의 비율이 높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박원호·송정민 2012) 그럼에도 설문조사에서 무당파라고 말하는 유권자

1) 장승진은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지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에는 없다고 말하였지만 두 번째 질문에서 특정한 정당을 선호한다고 답한 응답자를 편향적 무당파(independent leaners)라는 용어보다는 정당 편향 유권자(partisan leaners)로 표현하고 있다.

의 비율은 높게 나오는 편이다. 무엇보다 조사 때마다 무당파 비율이 크게 달라지고 있어 무당파 그리고 순수 무당파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다. 미국 연구에서 순수 무당파는 약 10%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Keith et al. 1992; Lascher and Korey 2011) 이와 비교해 보면 한국의 순수 무당파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유동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무당파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는 것은 정당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정치적 상황 때문이다. 정당과는 거리가 있는 무당파를 다루고 있기에 정당 간 양극화와 무당파의 투표행태는 관련성이 없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당 간 양극화의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정당 간 양극화가 유권자의 투표참여 및 투표율에 미치는 연구에서 보듯이 양극화는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Abramowitz and Stone 2006; Béjar et al. 2018; Dodson 2010; Hetherington 2008, 2009; Moral 2017; Siaroff and Merer. 2002; Wilford 2017). 양극화로 인해 무당파들도 두 정당이 지향하는 정책 차이 및 결과를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연구(Smidt 2017)는 정당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무당파 유권자들도 이에 대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정당 간 양극화로 인한 갈등과 대립은 많은 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정치참여와는 거리를 두게 한다는 주장도 있다(Fiorina et al. 2011; Hibbing and Smith 2004; Rogowski 2014). 이러한 경향은 무당파 유권자들에게 더욱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상반되는 두 주장을 바탕으로 무당파 유권자들은 정당 간 양극화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Ⅲ. 무당파의 사회·경제적 배경

무당파는 당파적 편견이 없는,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은 독립된 유권자로 정의할 수 있다(Campbell 1960; Sorauf and Beck 1988) 그러나 실제 무당파를 경험적으로 구분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정당에 대한 지지와 당파적 편견이 없는 순수한 무당파를 구분해 내는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 및 정당에 대한 강한 불신 풍토가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표현을 꺼려하고 있으며, 당파성을 띠고 있음에도 자신을 무당파로 구분하는 유권자로 인해 무당파가 어느 정도 가늠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당파 유권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게 나오는 편이며, 무당파임에도 편향적 정치 행태를 목격할 수 있다. 당파적 유권자와 무당파를 구분하여 비율을 알아보았다. <표 1>은 제17대 대통령 선거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까지 4번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무당파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²⁾ Keith et al.(1992) 그리고 Lascher and Korey(2011)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무당파의 비율은 약 10%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무당파는 이와는 크게 차이나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네 번의 선거에서도 무당파 비율의 편차는 큰 편으로 투표율 그리고 정당 간 양극화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³⁾ 투표율이 높았던 제19대와 제20대 대통령

2) 무당파 비율은 설문문항의 차이로 인해 조금 다르게 측정되었다. 제17대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느 정당을 가장 좋아하십니까?라고 물어보았을 때 두 번 모두 없다고 응답한 유권자를 무당파로 파악하였다. 한편, 제19대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1)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없다고 할 경우 (2)그렇더라도 다른 정당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다고 결국 두 번 질문에 모두 없다고 응답한 유권자를 무당파로 파악하였다.

3) 박원호·송정민(2012)은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 때 무당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유권자에게 후속 질문, 즉 약간이라도 가까운 정당이 있는 물어봐야 하며 이를 통해 조금 더 정확히 무당파를 측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무당파를 파악했음에도 무당파의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며 제17대와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기보다 높다. 이러한 차이는 조사방식에

선거의 무당파 비율은 높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았던 제17대와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무당파 비율은 낮다. 정당 간 양극화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무당파 비율 상승에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표 1〉 대통령선거에서 순수 무당파 비율

구분	제17대 대통령선거 (2007년)	제18대 대통령선거 (2012년)	제19대 대통령선거 (2017년)	제20대 대통령선거 (2022년)
무당파 (%)	21.9%	19.8%	40.4%	35.9%

무당파 비율이 높은 현상이 대통령 선거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현상인지 알아보기 위해 국회의원선거 후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까지 3번에 걸쳐 무당파 비율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듯이 매우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표 1>과 비교해 보면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무당파 비율이 대통령 선거에서의 비율보다 높은 편이다.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지만 무당파 비율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욱 높다는 점에서 두 선거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좀 더 확고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2016년과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무당파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이 또한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의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2004년 제17대 국회부터 국회 내 이념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에 따른 정서적 양극화도 커졌다는 점에서 무당파의 증가는 양극화와 관련성이 있다고 하겠다.

〈표 2〉 국회의원선거에서 순수 무당파 비율⁴⁾

구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2012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2016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020년)
무당파(%)	35.0%	46.9%	39.6%

위의 결과들은 한국 유권자 중 무당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연구가 한국 유권자 및 선거 결과 분석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⁵⁾ 이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대통령 선거 후 실시된 조사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표 3>은 두 유권자의 연령, 정치 효능감, 학력, 소득 비교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네 번의 결과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두 유권자의 평균 연령은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당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반면, 두 유권자 간 정치 효능감과 소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당파적 유권자의 정치 효능감은

-
- 4) 세 번의 선거에서 무당파 비율은 (1)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없다고 할 경우 (2)그렇더라도 다른 정당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습니까?라는 (1)과 (2) 질문에 모두 없다고 응답한 유권자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20대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차이점은 제19대의 경우 첫 번째 질문에 없다 혹은 모르겠다고 대답한 유권자에게 그림에도 가까운 정당이 있는지 물어본 반면, 제20대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각각 가깝게 그리고 친밀하게 느끼는 정당이 없다고 대답한 유권자에게만 그렇더라도 조금 더 각각 가까운 그리고 친근한 정당이 있는지 물어보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무당파 비율이 다른 선거보다 낮은 편이다.
- 5) 무당파 비율은 조사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조심성을 띠어야 한다. 여기서 사용한 자료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한 외부평가의 일환으로 실시된 대면조사를 통해 작성된 자료들이다. 그러나 다른 조사들을 보면 무당파의 비율이 낮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SDC가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제20대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무당파 비율은 각각 18.6%와 25.0%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마다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무당파에 대한 연구를 어렵게 하고 있는 편이다.

무당파 유권자보다 높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결과를 얻고 있다. 이는 이들을 구분하는데 있어 정치 효능감은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무당파 유권자의 학력은 당파적 유권자보다 높다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무당파 유권자의 특징을 말해주는 것으로 연령은 낮지만 학력은 높은 그러나 당파적 유권자와 비교해 소득과 정치 효능감은 차이가 없는 유권자라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무당파 유권자는 고학력의 젊은 유권자라 할 수 있다.

〈표 3〉 무당파/당파적 유권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치효능감 비교⁶⁾

구분		제17대 대통령 선거	제18대 대통령 선거	제19대 대통령 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
연령	무당파 유권자	36.49	37.39	44.49	43.66
	당파적 유권자	43.93	45.17	49.99	51.24
	t값	7.044 (p<0.001)	7.189 (p<0.001)	4.292 (p<0.001)	8.588 (p<0.001)
효 능 감 ⁷⁾	무당파 유권자	2.66	2.61	2.39	2.28
	당파적 유권자	2.59	2.53	2.41	2.25
	t값	1.458 (p=0.145)	2.000 (p=0.046)	0.655 (p=0.512)	1.31 (p=0.259)

6) 각 대통령 선거별 조사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어 네 번의 선거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제17대와 제18대의 경우 학력을 3범주로 구분하였지만 제19대와 제20대에서는 각각 6범주, 7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가구소득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이유로 각 선거별 무당파 유권자와 당파적 유권자 간 비교는 가능하지만 선거 간 비교는 불가능하다.

제19대와 제20대 대통령 선거 학력과 소득의 분석은 카이제곱과 함께 Fisher의 정확한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7) 정치효능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나 같은 사람에게는 투표만이 정부가 어떻게 해야

구분		제17대 대통령 선거	제18대 대통령 선거	제19대 대통령 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
학 력	χ^2 값	27.355 (p<0.001)	28.783 (p<0.001)	5.416 (p=0.367)	13.196 (p=0.040)
소 득	χ^2 값	7.562 (p=0.579)	7.551 (p=0.753)	11.225 (p=0.340)	17.794 (p=0.086)

IV. 무당파 유권자의 투표참여

기존 연구들은 무당파 유권자들은 정치적 행태에 있어 당파적 유권자와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의 정치 참여에 있어 당파적 유권자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또한, 무당파라 할지라도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있는가 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무당파가 있는데 이들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있다. 한편, 앞서 논의하였듯이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들의 투표참여에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하여 이들의 정치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투표 참여에 있어 무당파 유권자는 당파적 유권자와 차이가 있는지 4번의 선거를 통해 알아보면 <표 4>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투표 참여에 있어 두 유권자의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무당파임에도 이들의 투표 참여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지만 대통령 선거가 지나는 중요성 때문에 이들의 관심 또한 높기 때문이라 하겠다.⁸⁾ 정당 간 이념 양극화가 무당파 유권자의 정치 및 정당 신뢰에 어

되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투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투표하는가 안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의 질문을 사용하였다.

8) 두 유권자 간 정치 관심 및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을 비교해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라 하겠다.

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투표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0년을 기점으로 투표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유권자 중 무당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의 참여도 늘어나면서 투표율은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표 4〉 두 유권자의 투표 참여 비교

	제17대 대통령 선거	제18대 대통령 선거	제19대 대통령 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
무당파 투표율	63.3%	78.0%	64.1%	81.6%
비무당파 투표율	83.0%	92.7%	90.9%	98.1%
카이제곱 값	46.612 ($p<0.001$)	44.767 ($p<0.001$)	129.988 ($p<0.001$)	90.238 ($p<0.001$)

무당파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무당파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특히, 정서적 양극화와 연관 지어 무당파 유권자도 당파적 유권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호감도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며 이외에도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정서적 양극화의 영향력이 무당파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들의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모델을 구축해 보았다. 먼저 국회 내 의원들의 정치 양극화 그리고 당파적 유권자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양극화는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가상준 2020). 정치 양극화의 영향력은 무당파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Smidt 2017). 두 정당에 대한 호감도 차이, 두 정당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차이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호감도 차이가 클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⁹⁾ 무당파라 할지라도 정책에 대한

9) 정당 간 호감도 차이 그리고 후보자 간 후보자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유권자의 두 정당

관심 그리고 선거에 대한 관심은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투표에 참여하였을 것이며, 후보자 간 정책 차이를 인지할수록 투표에 참여했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정치 효능감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러한 점은 무당파 유권자에게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정치 효능감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투표 참여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정치 요인 외에도 사회·경제적 요인은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이다. 투표 참여에 있어 연령은 중요한 요인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투표 참여 가능성은 큰 편이다. 이러한 점은 소득과 학력에서도 알 수 있다. 투표 참여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비용은 학력과 소득이 높아지면서 감당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소득과 학력이 높아질수록 투표 참여는 높아질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독립변수를 바탕으로 무당파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았다. 종속변수는 투표 참여 여부로 참여하였으며 1, 기권하였으며 0으로 하였다. <표 5>는 2017년과 2022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통계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은 투표 참여에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무당파 유권자라 할지라도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은 이들의 투표 참여 차이를 불러오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두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차이가 투표 참여에 무엇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두 정당에 대한 호감도 차이도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두 후보자 간 호감도 차이 변수와 같이 포함되어 있을 때 통계적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두 번의 선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연령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무당파 유권자 중에서도 연령이 높아지면 투표 참여 가능성은 높게 나타나고 있는 편이다. 후보자 간 정책 차이가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은 두 번의 선거에서 달리 나타나고 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간 정책 차이는 무당파

과 두 후보자에 대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느낌의 정도”를 파악하여 차이의 절댓값을 계산하였다.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였지만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영향력을 찾을 수 없다. 이는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특징을 반영한 결과라도 할 수 있다. 즉,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후보자의 정책은 부각되지 않고 후보자에 대한 혐오와 애착만이 투표 참여 및 선택이 이루어진 선거였기 때문에 정책 선거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표 5〉 무당파 유권자의 투표 참여 분석

변수	2017년 대선			2022년 대선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1	모델2	모델3
성별	.114 (.260)	.179 (.256)	.119 (.260)	.002 (.330)	.025 (.328)	.011 (.339)
연령	.025* (.011)	.020+ (.011)	.026* (.011)	.032* (.014)	.039** (.014)	.040** (.014)
학력	.085 (.154)	.085 (.151)	.092 (.155)	.257 (.204)	.272 (.203)	.334 (.209)
소득	.205* (.083)	.203* (.081)	.204* (.083)	.092 (.091)	.053 (.089)	.073 (.093)
효능감	-.111 (.211)	-.140 (.205)	-.107 (.211)	-.184 (.316)	-.061 (.315)	-.196 (.328)
선거 관심	1.719*** (.199)	1.773*** (.198)	1.718*** (.198)	1.958*** (.319)	1.939*** (.328)	1.934*** (.335)
정책 차이	.526** (.188)	.503** (.184)	.521** (.188)	-.115 (.270)	-.217 (.269)	-.142 (.276)
후보자 호감도 차이	.330*** (.057)		.371*** (.100)	.263** (.080)		.242* (.116)
정당 호감도 차이		.274*** (.059)	-.053 (.107)		.199* (.079)	.013 (.119)
상수	-8.364 (1.355)	-7.962 (1.338)	-8.409 (1.357)	-5.701 (1.880)	-5.623 (1.903)	-6.019 (1.951)
N	485	485	485	375	375	375
적중률	82.7%	80.8%	82.7%	84.0%	83.7%	84.0%
Nagelkerke R ²	0.497	0.468	0.498	0.329	0.301	0.320

+p<0.1, *p<0.05, **p<0.01, ***p<0.001

무당파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비교적 차원에서 알아보기 위해 당파적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두 유권자 간 투표 참여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앞선 모델에 강한 정당일체감 유권자를 약한 정당일체감 유권자와 구별하기 위해 정당일체감 변수를 포함시켰다. <표 6>은 당파적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에 미친 요인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17년과 2022년 결과를 비교해 보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무당파 유권자들에 대한 분석 결과와 비슷하다. 2017년 당파적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연령,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 두 후보자 정책 차이, (강한) 정당일체감, 그리고 정당 및 후보자 호감도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2022년 당파적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미친 요인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후보자 호감도 차이임을 알 수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두 후보자 간 정책차이는 당파적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당 호감도 차이의 영향력도 발견할 수 없다. 이는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정책과 정당보다는 후보자에 의해 영향을 받은 선거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⁰⁾ 종합적으로 당파적 유권자이지만 두 선거에서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차이가 있지만 선거에 대한 관심과 두 후보자 호감도 차이는 항상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표 6> 당파적 유권자의 투표 참여 분석

변수	2017년 대선			2022년 대선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1	모델2	모델3
성별	.277 (.280)	.287 (.279)	.256 (.281)	-.304 (.695)	-.220 (.686)	-.360 (.697)

10) 2022년 대통령 선거 분석에서 예상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종속변수의 문제점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즉, 분석 대상 671명 중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는 13명(1.9%)로 이럴 경우 분석 모델에 포함할 수 있는 독립변수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점이 변수의 통계 유의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다.

변수	2017년 대선			2022년 대선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1	모델2	모델3
연령	.027+ (.012)	.023+ (.012)	.027* (.012)	.017 (.030)	.017 (.030)	.020 (.031)
학력	.242 (.174)	.217 (.173)	.221 (.174)	.137 (.418)	.153 (.413)	.137 (.422)
소득	.072 (.099)	.076 (.098)	.082 (.099)	-.058 (.186)	-.064 (.178)	-.051 (.186)
효능감	.023 (.134)	.048 (.134)	.060 (.136)	-.026 (.695)	.057 (.679)	.020 (.691)
선거 관심	.463* (.202)	.504* (.202)	.472* (.202)	1.521*** (.469)	1.569*** (.470)	1.535*** (.469)
정책 차이	.623** (.230)	.630** (.228)	.618** (.229)	.615 (.532)	.598 (.541)	.703 (.543)
후보자 호감도 차이	.124* (.057)		.266** (.099)	.252+ (.144)		.361+ (.195)
정당 호감도 차이		.044 (.057)	-.177+ (.100)		.109 (.140)	-.163 (.201)
강한 정당일체감	.491+ (.287)	.540+ (.288)	.530+ (.289)	.737 (.638)	.833 (.639)	.822 (.649)
상수	-4.830 (1.486)	-4.531 (1.469)	-4.828 (1.482)	-3.740 (3.868)	-3.711 (3.809)	-4.024 (3.950)
N	715	715	715	665	671	665
적중률	90.9%	90.9%	90.8%	97.7%	97.6%	97.7%
Nagelkerke R ²	0.110	0.098	0.120	0.256	0.232	0.261

+p<0.1, *p<0.05, **p<0.01, ***p<0.001

<표 5>와 <표 6>의 결과는 무당파 유권자와 당파적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있어 차이점이 없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무당파 유권자에게도 두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혐오와 애착이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당파적 유권자들에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정서적 양극화가 무당파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정당보다

는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가 투표 참여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무당파 유권자의 특징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무당파 유권자의 투표 참여는 당파적 유권자에 비해 소극적이지만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무당파 유권자라 할지라도 투표 참여 무당파와 투표 불참 무당파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V. 비교차원에서 본 무당파 유권자의 특징

1. 두 정당에 대한 호감도

순수 무당파는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태도에 있어 편향적 무당파와는 다르다. 특히, 편향적 무당파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두 정당에 대한 호감에 있어 차이가 크지 않거나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호감도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Greene 2002; 장승진 2015). 그러나 설문조사를 통해 무당파를 순수 무당파와 편향적 무당파로 구분하는 건 쉽지 않다. 다만 앞서 보았듯이 무당파를 투표 참여 무당파와 투표 불참 무당파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무당파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기 위해 무당파의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차이 편차(분산)가 당파적 유권자와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먼저 무당파 유권자와 당파적 유권자의 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차이에 대해 분산비교를 시도해 보았다.¹¹⁾ 일반적으로 무당파 유권자의 분산과 당파적 유권자의 분산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무당파 유권자는 두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호감도 분산이 상대적으로 당파적 유권자의 분산보다 작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11) 분산비교는 두 분산은 같다($H_0: \sigma^2_{\text{무당파 유권자}} = \sigma^2_{\text{당파적 유권자}}$)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는지 기각되지 않는지를 F 검정을 통해 분석을 시도한다.

<표 7>은 2017년과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2022년의 경우 예상과 다르지 않지만 2017년은 예상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2017년 조사에서 무당파 유권자의 두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호감도 분산은 당파적 유권자의 호감도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의 선거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파적 유권자들은 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구분되는 호감도 차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불만족감이 있었겠지만 상대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커다란 반감이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반면, 2017년 무당파 유권자들의 두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는 정당일체감 유권자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무당파 유권자들의 높은 비율과 관련이 있다. 즉,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무당파 비율은 과거 어느 선거 때보다 높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지지하는 정당을 의도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표출하기 꺼려하는 유권자,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이들이 무당파로 포함되면서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는 높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표 7〉 두 정당 및 후보자 호감도 차이 분산 비교

구분	2017년 대통령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 호감도 차이(분산)	정당 호감도 차이(분산)	후보자 호감도 차이(분산)	정당 호감도 차이(분산)
무당파 유권자	7.072	5.687	4.845	4.380
당파적 유권자	6.877	6.399	6.929	6.077
F통계값	1.028	1.125	1.430***	1.387***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5>와 <표 7>의 결과를 종합해 분석해 보면 2017년 무당파 유권자들과 2022년 무당파 유권자 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2017년 무당파의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2017년 무당파 유권자들의 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분포는 당파적 유권자와 다르지 않은데 비해 2022년 무당파 유권자는 그렇지 않았다. 한편,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무당파 유권자는 두 후보에 대한 정책적 차이보다는 호감도에 따른 투표 참여 결정을 내린데 비해 2017년 무당파 유권자들은 두 후보자 간 분명하게 보이는 정책적 차이에 영향 받아 투표 참여를 결정하였다. 즉, 2017년 무당파의 투표 참여는 정당, 후보자, 후보자 간 정책차이에 영향을 받았지만 2022년 무당파는 정당과 후보자에 영향을 받아 투표 참여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 무당파 유권자의 특징은 시기별로 구분해서 살펴 보아야 한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으로 무당파 연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2. 투표 참여 무당파의 특징

앞서 무당파 유권자의 정치적 특징을 투표 참여를 통해 살펴보았다. 무당파의 투표 참여에 미친 중요한 요인은 선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반영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무당파의 정치적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먼저 투표 참여 무당파는 투표 불참 무당파와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으며, 투표 참여 무당파와 약한 정당일체감 유권자와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무당파 유권자를 동일하게 보는 것보다는 투표 참여 무당파와 투표 불참 무당파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지 알아보았다. 먼저 두 무당파의 정치적 특징에 확연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8>에서 보듯이 두 유권자는 정당 및 후보자 감정적 태도에 대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선거에 대한 관심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무당파이지만 두 무당파 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8〉 두 무당파 정치적 특징 비교

구분	2017년 대통령 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			
	정당 호감도	후보자 호감도	정치 관심	선거 관심	정당 호감도	후보자 호감도	정치 관심	선거 관심
투표불참 무당파	1.741	2.023	1.93	2.09	1.785	1.716	1.87	1.94
투표참여 무당파	3.196	3.977	2.61	2.99	2.517	2.821	2.39	2.63
평균 비교	6.732 (p<0.001)	8.288 (p<0.001)	9.856 (p<0.001)	14.077 (p<0.001)	2.577 (p=0.01)	3.783 (p<0.001)	6.010 (p<0.001)	8.075 (p<0.001)

다음으로 투표 참여 무당파는 약한 정당일체감 유권자와 정치적 특징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무당파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투표 참여 무당파와 약한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유권자 간 정치적 특징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표 9>에서 보듯이 투표 참여 무당파와 약한 정당일체감 유권자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약한 정당일체감 유권자의 정치 관심 그리고 선거 관심은 투표 참여 무당파보다 높게 나타나며 이들의 정당 및 후보자 호감도 차이(절댓값)은 투표 참여 무당파보다 크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투표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무당파일지라도 약한 정당일체감 유권자와는 정치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9〉 투표참여 무당파와 약한 정당일체감 유권자 정치적 특징 비교

구분	2017년 대통령 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			
	정당 호감도	후보자 호감도	정치 관심	선거 관심	정당 호감도	후보자 호감도	정치 관심	선거 관심
투표참여 무당파	3.196	3.977	2.61	2.99	2.517	2.821	2.39	2.63
약한 PID	4.011	4.343	2.77	3.15	3.351	3.649	2.53	2.84

구분	2017년 대통령 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			
	정당 호감도	후보자 호감도	정치 관심	선거 관심	정당 호감도	후보자 호감도	정치 관심	선거 관심
평균 비교	3.557 (p<0.001)	1.498 (p=0.135)	2.236 (p=0.026)	2.635 (p=0.009)	3.655 (p<0.001)	3.488 (p=0.001)	1.867 (p=0.063)	3.026 (p=0.003)

투표불참 무당파와 투표참여 무당파 유권자 간에는 뚜렷한 정치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투표참여 무당파와 약한 정당일체감 유권자 간에도 유의미한 정치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정치적 특징 차원에서 보았을 때 유권자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무당파 유권자를 동일하게 보는 것보다는 투표 참여 무당파와 투표 불참 무당파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간 사회·경제적 특징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성별, 연령, 학력, 소득을 통해 알아보았다. <표 10>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연령과 소득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표 불참 무당파 유권자의 연령은 투표 참여 무당파에 비해 젊다. 두 유권자의 소득은 차이가 있지만 조사 시기마다 소득이 높은 유권자는 차이가 있다. 반면, 두 유권자의 성별과 학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무당파 유권자라 할지라도 연령은 두 유권자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요인이며 성별과 학력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무당파의 특징은 당파적 유권자에 비해 연령은 낮고 학력은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무당파는 높은 학력 그러나 더욱 낮은 연령이라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표 10〉 두 무당파 사회·경제적 배경 비교¹²⁾

구분	2017년 대통령 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			
	연령	성별	학력	소득	연령	성별	학력	소득
통계값	2.044 (p=0.043)	0.059 (p=0.809)	6.663 (p=0.245)	26.927 (p=0.001)	2.810 (p=0.005)	0.952 (p=0.329)	6.263 (p=0.258)	16.912 (p=0.052)

무당파가 선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들의 참여와 선택이 선거 결과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투표에 참여하는 무당파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정당 그리고 후보자를 선택하게 된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무당파는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고 정치에 냉소적이기에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고 이들이 투표 참여 행태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들의 투표 참여가 어떠한지 이전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이전 국회의원선거 참여를 통해 알아보았다. 먼저 <표 11>은 무당파의 이전 대통령 선거 참여 여부를 보여주고 있다. 투표에 참여한 무당파의 이전 대통령 선거 참여는 투표 불참 무당파보다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투표 불참 무당파의 이전 선거 투표 참여가 예상보다 높다는 점을 통해 이들이 항상 불참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찾을 수 있다.

〈표 11〉 이전 대통령 선거 참여 여부

구분	2017년 대통령 선거 무당파들의 2012년 대통령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 무당파들의 2017년 대통령선거			
	참여	불참	투표권 없음	모름	참여	불참	투표권 없음	모름
투표불참 무당파	84 48.3%	64 36.8%	14 8.0%	12 6.9%	39 56.5	25 36.2%	2 2.9%	3 4.3%

12) 연령은 t통계값, 성별은 카이제곱 통계값, 학력과 소득은 Fisher 정확한 검정 통계값이다. 참고로 2017년 투표불참 무당파와 투표참여 무당파의 평균 연령은 42.76세 45.45세이며 2022년의 경우 39.36세, 44.64세이다.

구분	2017년 대통령 선거 무당파들의 2012년 대통령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 무당파들의 2017년 대통령선거			
	참여	불참	투표권 없음	모름	참여	불참	투표권 없음	모름
투표참여 무당파	238 76.5%	48 15.4%	9 2.9%	16 5.1%	263 85.9%	27 8.8%	5 1.6%	11 3.6%
χ^2 값	42.270(p<0.001)				37.124(p<0.001)			

무당파 유권자들의 국회의원선거 참여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통령 선거 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국회의원선거 참여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는 것으로 <표 12>에서 보듯이 무당파의 국회의원선거 투표 참여는 낮지 않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 투표 불참 무당파의 국회의원선거 불참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항상 불참하는 것은 아니다. 투표율이 더 높았던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무당파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2016년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점은 투표 불참 무당파 그리고 투표 참여 무당파 모두에게서 발견되고 있다.

<표 12> 이전 국회의원선거 참여 여부

구분	2017년 대통령 선거 무당파들의 2016년 국회의원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 무당파들의 2020년 국회의원선거			
	참여	불참	투표권 없음	모름	참여	불참	투표권 없음	모름
투표불참 무당파	51 29.3%	109 62.6%	2 1.1%	12 6.9%	31 44.9%	33 47.8%	2 2.9%	3 4.3%
투표참여 무당파	211 67.8%	84 27.0%	1 0.3%	15 4.8%	225 73.5%	64 20.9%	4 1.3%	13 4.2%
χ^2 값	68.371(p<0.001)				23.403(p<0.001)			

최근 한국정치의 특징은 무당파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전반적인 투표율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무당파 유권자들의 높은 투표 참여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위의 결과들 또한 무당파 유권자들의 높은 투표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무당파 유권자 중 지속적으로 투표에 불참하는 무당파 유권자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무당파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와 선택은 투표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2년 대통령 선거와 같이 두 후보자 간 투표 차이가 크지 않은 선거에서 무당파 유권자들의 선택은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이 한국 선거결과를 결정짓는 유권자들이라는 점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VI.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정치는 정당 간 이념 양극화, 유권자 간 정서적 양극화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극한 갈등과 대립 속 혐오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당파의 증가를 목도할 수 있다. 무당파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무당파 유권자를 정확히 구분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점도 있겠지만 지지하는 정당을 표출하지 않으려는 유권자들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당파적 유권자들에게 초점 맞추어져 있는 연구들이 정당과 선거 연구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크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무당파 유권자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무엇보다 한국 유권자에서 무당파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측정 시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당 간 이념 양극화 시기에서 당파적 유권자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지만 무당파 유권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정치 양극화가 불러온 반감지 않은 결과라 하겠다. 무당파 유권자들은 연령은 낮지만 학력은 높은 유권자라는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과거 연구와 동일한 결과라 하겠다(류재성 2013; 박원호·송정민 2012; 윤종빈 외 2명 2016; 이현출 2001).

무당파 유권자들의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는 당파적 유권자와 차이가 있으며 이들의 투표 참여는 당파적 유권자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들이 특정 정당에 애착감이 없다고 해서 투표 참여가 낮은 것은 아니다. 앞선 결과에서 보았듯이 무당파 유권자의 대통령 선거 참여는 예상보다 높은 편이며 이들의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은 당파적 유권자와 비교해 다르지 않다. 이들이 가지는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애착과 혐오는 투표 참여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무당파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서적 양극화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당보다는 후보자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당파를 투표 참여 무당파와 투표 불참 무당파로 구분해 살펴보면 정치 및 선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투표 참여 무당파와 약한 정당일체감 유권자 사이에도 발견되고 있다. 투표 불참 무당파는 투표 참여 무당파에 비해 연령은 낮지만 학력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무당파라 할 지라도 특히 투표 불참 무당파들도 지속적으로 투표에 불참하는 유권자는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정당 간 이념 양극화 속 혐오와 대립정치에 대해 거리감을 보이는 무당파 유권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요 선거에서 투표율은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양극화는 당파적 유권자의 투표 참여 상승뿐만 아니라 무당파의 투표 참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정치 양극화가 정치와 정당에 대한 불신을 높여 투표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보다는 두 정당에 대한 이념적, 정책적 차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투표 참여를 증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치 양극화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무당파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무당파의 투표 참여와 결정이 무엇보다 선거 결과에 영향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무당파를 정확히 구분해 내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본 연구는 무당파

유권자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새롭게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당파가 어느 수준이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했다는 점에서 기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무당파 유권자 관련 연구가 충분히 이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가상준. 2020. “정당 간 양극화가 투표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가?” 『한국정당학회보』 19권2호, 101-129.
- 강원택. 2012. “정파적 지지와 인지적 동원.” 박찬욱·강원택 편.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분석』 서울: 나남출판사.
- 김성연. 2015. “한국 무당파의 이념, 정책 선호, 그리고 정치적 태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9권 3호, 149-172.
- 김형준. 2008. “한국 선거의 투표율 하락 추이와 원인 고찰.” 『21세기정치학회보』 18권 1호, 93-122.
- 박원호·송정민. 2012. “정당은 유권자에게 얼마나 유의미한가?: 한국의 무당파층과 국회의원 총선거.” 『한국정치연구』 21권 2호, 115-143.
- 류재성. 2012. “중도 및 무당파 유권자 특성: 무태도(non-attitudes)인가 부정적 태도(negativity)인가? 『대한정치학회보』 20권 1호, 101-127.
- 소순창·현근. 2006. “한국 선거에서 나타난 무당파층과 정당정치.”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권 2호, 47-75.
- 윤종빈·김진주·정희옥. 2016. “한국 무당파의 특성과 투표행태 분석: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7권 1호, 83-109
- 이현출. 2001. “무당파층의 투표행태: 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권 4호, 137-160.
- 장승진. 2015.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과 투표행태: 정당 편향 유권자(partisan leaners)의 특성과 투표선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4권 2호, 25-52.
- 정진민·길정아. 2014. “18대 대선에서 나타난 한국 무당파 유권자의 특성과 행태: 인지적 동 원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20권 3호, 135-195.
- Abramowitz, I. Alan and Walter J. Stone 2006. “The Bush Effect: Polarization, Turnout, and Activism in the 2004 Presidential Election.”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36(2): 141-154.

- Bafumi, Joseph and Robert Y. Shapiro. 2009. "A New Partisan Voter." *Journal of Politics* 71(1): 1-24.
- Bartels, Larry. M. 2000. "Partisanship and Voting Behavior, 1952-1996."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1): 35-50.
- Béjar, Sergio, Juan A. Moraes, and Santiago López-Cariboni. 2018. "Elite polarization and voting turnout in Latin America, 1993–2010." *Journal of Elections, Public Opinion and Parties* 30(1): 1-21.
- Bishin, Benjamin G., Daniel Stevens, and Christian Wilson. 2005. "Truth or Consequences?: Character and Swing Voters in the 2000 Election." *Public Integrity* 7(2): 129-146.
- Dalton, Russell J. 1984. "Cognitive Mobilization and Partisan Dealignment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Journal of Politics* 46(1): 264-284.
- Dodson, Kyle. 2010. "The Return of the American Voter? Party Polarization and Voting Behavior, 1988 to 2004." *Sociological Perspectives* 53(3): 443-449.
- Fiorina, Morris P., Samuel J. Abrams, and Jeremy C. Pope. 2011. *Culture War? The Myth of a Polarized America*. 3rd ed. New York: Pearson-Longman.
- Girvan, Erik J., Jason Weaver, and Mark Snyder. 2010. "Elevating Norm Over Substance: Self-Monitoring as a Predictor of Decision Criteria and Decision Time among Independent Voters." *Analysis of Social Issues and Public Policy* 10(1): 321-336.
- Hetherington, J. Marc. 2008. "Turned Off or Turned On? How Polarization Affects Political Engagement." ed. Pietro S. Nivola and David W. Brady. In *Red and Blue Nation? Consequences and Correction of America's Polarized Politics*. Washington D.C: The Brooking Institution.
- Hibbing, John R. and James T. Smith. 2004. "Is It the Middle That is Frustrated? Americans' Ideological Positions and Governmental Trust." *American Politics Research* 32(6): 652-678.
- Keith, Bruce E., David B. Magleby, Candice J. Nelson, Elizabeth Orr, Mark C.

- Westlye, and Raymond E. Wolfinger. 1992. *The Myth of the Independent Voter*. Berkeley: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ascher, Edward L. and Jon L. Korey. 2011. "The Myth of the Independent Voter, California Style." *California Journal of Politics and Policy* 3(1): 1-19.
- Levendusky, Matthew. 2009. *The Partisan Sort: How Liberals Became Democrats and Conservatives Became Republican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uskin, Robert C., John P. McIver, and Edward G. Carmines. 1989. "Issues and the Transmission of Partisanship."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3(2): 440-458.
- Moral, Mert. 2017. "The Bipolar Voter: On the effects of Actual and Perceived Party Polarization on Voter Turnout in European Multiparty Democracies." *Political Behavior* 39: 935-965.
- Nie, Norman H. Sidney Verba, and John R. Petrocik. 1993. "The Decline of Partisanship." In *Classics in Voting Behavior*. ed. Richard G. Niemi and Herbert F. Weisberg.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Inc.
- Rogowski, Jon C. 2013. "Electoral Choice, Ideological Conflic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8(2): 479-494.
- Rosenstone, Steven J. and John M. Hansen. 1993.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MacMillan.
- Sartori, Giovanni. 1976. *Parties and Party Syste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aroff, Alan and John W. A. Merer. 2002. "Parliamentary Election Turnout in Europe since 1990." *Political Studies* 50(5): 916-927,
- Smidt, Corwin D. 2017. "Polarization and the Decline of the American Floating Voter."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1(2): 365-381.
- Sorauf, Frank Joseph and Paul Allen Beck. 1988. *Party Politics in America*. Glenview: Scott, Foresman and Company
- Wattenberg, Martin P. 1991. *The Decline of American Political Parties, 1952-1988*.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Wilford, M. Allen. 2017. "Polarization, Number of Parties, and Voter Turnout: Explaining Turnout in 26 OECD Countries." *Social Science Quarterly* 98-5: 1391-1405.

투고일: 2022.10.15.	심사일: 2022.11.22.	게재확정일: 2022.11.23.
------------------	------------------	--------------------

Characteristics of Korean Independent Voters

Ka, Sangjoon | Danko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independent voters who show politically independent tendencies amid partisan polarization. It was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independent voters is very high. It is noteworthy that the influence of partisan voters is growing in the ideological polarization period, but the fact that independent voters account for a high proportion is an unwelcome result of political polarization. Independent voters have a different preference for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than partisan voters, and their voting participation is lower than that of partisan voters. However, their lack of attachment to a particular political party does not mean that their participation in election is low. It was found that their attachment and hatred to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ar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ir participation in election. This study can be found to contribute in that it newly raised the need for research on independent voters and identified the level of independent voters and their characteristics. It is hoped that research on independent voters will continue sufficiently in the future, and various and in-depth analyzes of them will be made.

Key Words | Independent Voters, Affective Polarization, Voting Participation, Partisan Voters